



최근 막을 내린 전북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가 JTV 전주방송을 통해 매주 방영되고 있다. 사진은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라북도체육회 제공)

JTV 전주방송 '내일은 체육왕' 본방 사수

# 전북 체육 꿈나무 활약상 TV로 재미있게 보세요

최근 막 내린 선발대회  
지난달 23일부터 매주 방영  
수·금요일 오후에 재방송도

전북 체육 새싹들의 활약상이 TV로 방영되면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막을 내린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가 JTV 전주방송을 통해 매주 방영되고 있다.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는 운동에 재능이 있는 숨은 체육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전문 체육반에 소속되지 않은 도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결선으로 나눠 치뤄졌다. 최종 결과 우승자는 총 8명(학년별 남녀 각 1명)으로 예선, 본선, 결선경기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됐다. 이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JTV의 '내일은 체육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약 40분 가량

방영, 대회의 감동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 또 본 방송을 보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오후4시)과 금요일(오후7시) 2차례 재방송된다. 방송에서 어린 선수(초등학교4년~중학교1년)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전문 사회자와 해설자들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며 재미와 감동을 전달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12월 17일까지 방영될 예정이며, 오는 8일에는 '내일은 체육왕 제3회'가 방송된다. /정은성 기자

## 임실군청 사격팀, 전국대회서 메달 수확

김예지, 개인 은메달 1개  
단체 동메달 2개 획득

임실군청 사격팀 감독 박민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7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한 제5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해 김예지 선수가 개인 은메달 1개, 단체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김예지 선수는 공기권총 여자일반부 개인 결승전에서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추가는 선수(BK기업은행)와 접전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공기권총과 25m 권총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올 시즌 마지막 전국대회이자 2022년 국가대표 선발대회로 그 의미가 더 크다.

임실군청 김예지 선수와 황성은 선수(2020 국가대표 경력)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4일간) 2021년 국가대표 선발전 기록 상위 30위 이내 선수들을 대상으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는 2021 흥분도장군대 사격대회에 참가한다.



박민수 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대회가 반복적으로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어낸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임실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심 민 군수는 "큰 활약으로 임실군의 명예를 빛내준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들의 선전에 감사드리며, 값진 메달 획득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북현대 4-0 대승' 이곤 쿠니모토, K리그1 34라운드 MVP

프로축구 전북 현대 미드필더 쿠니모토가 하나원큐 K리그1 2021 34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수원 삼성의 경기에서 4-0 대승을 이끈 쿠니모토가 34라운드 MVP에 뽑혔다"고 2일 밝혔다.

쿠니모토는 전반 10분 완발 슈트로 선제골을 넣었다. 이후에도 90분 내내 전북 공격의 활로를 여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의 대승을 견인했다.

K리그 주간 베스트11 공격수에는 주민규(제주), 송시우(인천), 오세훈(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에는 쿠니모토를 비롯해 김보경(전북), 이창경(울산), 이창민(제주)이 자리했다. 수비는 최지복(성남), 김요규, 안현범(이상 제주)이 선정됐다. 골키퍼는 윤보상(광주)이다. /뉴시스

### 단풍미인씨름단,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출전

한라급 김기환 등 총 9명 출전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2일 2021 위더스제약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출전한다.

지난달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열린 '영양장사 씨름대회'에서 창단 이후 세 번째 장사를 배출하며 쾌조의 성적을 거둔 단풍미인씨름단은 이 기세를 몰아 이번 대회에서도 새로운 장사 배출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 경기에는 김시영 감독과 조명신 코치를 중심으로 태백급(80kg 이하) 2명(황찬섭, 김성하), 금강급(90kg 이하) 2명(유혁배경진), 한라급(105kg 이하) 3명(김기환, 이송욱, 한창수), 백두급(140kg 이하) 2명(서남근, 김병찬) 총 9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고닦은 기량을 바

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는 KBS 1tv, KBS N Sports 및 유튜브 채널 '살비TV'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김시영 감독은 "현재 단풍미인씨름단 선수들의 사기가 매우 좋은 상태"며 "이 흐름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올해에만 세 번째 장사를 배출하며 정읍시를 전국에 알린 씨름단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최선의 기량을 펼쳐 향기공화국 정읍의 향기를 전국에 퍼뜨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김효주, 여자골프 세계랭킹 9위... 톱10 재진입

김효주(롯데)가 여자골프 세계랭킹 톱10에 재진입했다.

김효주는 2일(한국시간) 공개된 세계랭킹에서 평점 5.16으로 지난주보다 두 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다.

10위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19일 랭킹에서 11위로 밀렸던 김효주는 2주 만에 다시 10위권 이내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전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

상금 8억원·우승상금 1억4400만원)에서 정상에 오른 것이 상위권 도약으로 이어졌다.

초청 선수로 합류한 김효주는 지난달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KLPGA 투어 시즌 2승째를 거머쥐었다.

고진영(솔레이)이 1위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박인비(KKB금융그룹)와 김세영(메디힐)이 3위와 4위에 자리했다. 효주 교포 이민자는 1계단 상승한 5위가 됐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